



치협내 '글로벌 지원센터' 운영 이민 관련 전문가 선발 맞춤형 정보 제공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기 위한 '글로벌 지원센터(이하 글로벌센터)'가 설립·운영된다.

5월 9일 시덱스에서 열린 호주 치협 임원인 이흥기 원장의 '한국 치과의사의 호주 진출에 관한 설명회'를 필두로 호주 기술이민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대외적 접근방향을 돕기 위한 글로벌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치협은 국내 치과계 인력구조, 치과의사가 부족한 국가의 현황, 기술 이민에 대한 정보지원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센터는 호주 등 오세아니아 지역 치과계 진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며, 결과적으로 우수한 국내 치과의사들의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한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등의 인력감축 효과도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치협은 우선 글로벌 센터에 이민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해 법무팀과 교육팀을 구성한 뒤 문외해 오는 회원별로 이민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치협 내 위원회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홈페이지, 치의신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치협은 향후 글로벌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할 센터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달 박영숙 주한호주대사관 수석보좌관을 면담하고 호주 기술이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이민을 돕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의 치과의사들은 우수한 인재가 많아 해외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러기 아빠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치과의사들의) 이민을 좀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조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보좌관은 호주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글로벌 센터의 설립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이민관련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적인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정보의 폭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욕구를 배가시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동치과병원' 전국 누빈다 남구협, 개소식...실향민·소외계층 등 활용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5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는 5월 19일 개성공업지구 협력구강병원 지원사업과 관련해 마련된 '이동치과병원(진료차량)'의 국내외 활용을 위한 개소식을 가졌다.

이동치과병원의 주차공간이 마련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해 서대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송준관 치기협 회장, 송종영 치재협 회장, 김원숙 치위협 회장 등 남구협 의장단과 실무위원, 김세영·양영환 치협 부회장, 신명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민천 김포시 보건소장, 김장희 치기협 부회장, 강명숙 치위협 부회장, 이용훈(주)신흥 이사 등이 참석해 이동치과병원의 개소를 축하했다.

이수구 협회장(남구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남북관계 경색국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

협력구강병원 사업계획과 관련해 마련된 이동치과병원이 이대로 방치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전국 구석구석 치과진료가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진료봉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구협은 향후 이동치과병원을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북한 실향민을 포함한 전국의 소외계층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완성된 이동치과병원은 유니트케어 2대를 포함해 디지털 엑스레이, 고압멸균소독기, 광중합기 등 치과진료에 필요한 진료장비와 관련 기구들이 설치돼 있으며, 외부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압조정기, 유사시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기, 엑스레이 차단 납판 내장재 등 다수 특수장비 등이 탑재돼 있다.



경영분석 프로그램 개발 속도낸다

경영정책위, 기본 매뉴얼 등 연구내용·방법 논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이하 위원회)가 치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분석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위원회는 5월 11일 서울역 그릴에서 제12차 위원회 회의를 연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용역의뢰기로 결정한 바 있는 '치과 혁신을 위한 치과경영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숙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윤희철 휴네스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신규 개원의와 고령의 개원의들에게 경영상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기본 경영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연구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도 경영분석 프로그램 개발은 일회성 연구가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며 자료를 수집해 치과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치과진료실내 공기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도 병행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책

임자인 최치원 위원이 전반적인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영리법인이 치과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대응책 개발' 연구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기로 하고 연구방향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과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글로벌지원센터 업무를 맡아 호주기술이민 희망자를 조사기로 하고 국내에서 기본시험(영어)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지영철 위원장은 "치과경영분석 프로그램 개발은 꾸준한 추가연구가 전제돼야 의미가 있으며, 치과계가 반대하는 영리법인 관련 연구도 충분한 대응논리를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추진 중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위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고속 핸드피스 등 5종 단체표준 제정

표준기술력 향상 1차사업 확정

고속 핸드피스, 미니 임플란트 등 5종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이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 확정됐다.

또 2013년 국제표준기구 치과분야(이하 ISO/TC 106) 총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치과의료기기 표준개발협력기관인 치협이 매년 2억원씩 5년간 정부지원아래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가운데 5월 13일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가 서울역 그릴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책임연구원인 김경남 교수(연세치대), 사업 총괄 간사인 박정중 교수(연세치대)를 비롯해, 메타바이오메드, 두나미스, 오스템임플란트, 바이오머테리얼즈코리아, 베리콤, 오성엠앤디 등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관련 연구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검토했다.

이번 사업은 '치과의료기기의 국내 및 국제표준의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2009년 4월부터 오는 2014년 3월까지 총 5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우선 1차 년도에는 고속 핸드피스, 미니 임플란트, 오스테오톰, 형광, 거타퍼차 등 5종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오는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ISO/TC 106 총회에 참가해, 2013년 한국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하게 된다.

ISO/TC 106 총회의 경우 FDI 총회 개최국에서 매년 개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치협이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ISO/TC 106 총회 유치 전망도 밝은 편이다.

아울러 국제전문가인 ADA의 스탠포드 박사를 초청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도 1차년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체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및 포럼 구성과 치협 내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진행되며,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회사 상담과 현장지도 등이 계획됐다.